불자 세상보기

메르스와 불교의 역할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병고액난에 불교계가 취할 대 사회적 역할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기에 '바이러스(virus)'와 관련한 질병에는 속수무책으로 개인의 위생관리만 철저를 기하면 되는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직접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도 기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현대적 해석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 · 질병 · 범죄로 인해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고통을 경험한다. 전쟁 · 질병 ·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방일함에 기인한다. 전쟁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영토 · 자원 · 금융 · 에너지와 운송수단 등을 장악할 목적 또는 특정사상이나 종교이념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으킨다.

인간은 온갖 질병(불교에서는 '사백사병(四白四病)'이라 함)에 노출되어 있다. 의학적 처방으로 치유가 되거나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악성전염병과 같이 수습과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 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예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적 관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기본적인 사고와, 인간은 고난을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초기에 소수의 발병자 발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보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격리돼야 할 사람들이 격리범위를 제멋대로 이탈하는 것 등, 그 내외적 요인은 결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아만(我慢)과 아상(我相), 무책임 그리고 어리석음(치암:癡闇)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제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관계자들의 정신세계가 책임감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지 않거나 긴장감이 풀어져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초동조치에 실패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 삼성의료원 등 연관된 병원과 감염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더 이상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 등, 그간의 시행착오는 결국 아만과 어리석음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메르스를 퇴치하려고 불철주야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이 있고, 감염의 위험에 강도 높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 치유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비록 불자는 아니라 해도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 즉,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를 위해 조건 없이 자비행을 베푸는 분'들이라 하겠다.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솔선수범 하며 "메르스 의심증상 안심하고 진료 받으세요"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외시(無畏施:중생에게 두려움 없게끔 해주는 행위로써의 보살행)'라 할 수 있다.

불교계는 전략적으로 국가와 사회지도층에게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세계관을 인식시켜야 한다. 불교는 질서를 세우며 세상에 자비를 구현하는 종교로서 이제라도 사회에 질서와 자비심을 뿌리내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단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

종교계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직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민은 경제활동 등 일상에 충실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대로 즉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의료 및 관계기관의 종사자와 방문자, 병증 의심이 있는 자, 발생지역 거주자 등은 만일을 대비하여 방문한 장소, 이동 정보, 만난 사람들을 소급해서 일일기록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하고 합심하는 민족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메르스 퇴치에 다 같이 적극 협력한다면 조기 퇴치가 가능함을 확신한다. 조계종단도 메르스 치유에 혼신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큰 위험성이 없는 한 이미 계획된 교계의 행사는 현장에서 가능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바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무외시의 실천이며, 법좌 부동의 멋일 게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동국대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주인을 맞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109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을 한몫에 스님으로 추대하여 지난 6월 11일 교내에서 합동 취임식을 가졌다.

법인 이사장(제38대)은 일면 스님, 그리고 대학 총장(제18대)은 보광 스님이다. 지난 85년 황진경 스님 이사장, 이지관 스님 총장에 이어 해방 후 두 번째로 이사장과 총장이 다같이 스님으로 종립대학의 책임자들이 된것이다. 따라서 학원 내에서나 교계 안팎에서는 의외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아시아 대학평가'에 보면(6월 10일자 A14) 조계종립 동국대는 국내순위에서 14위고, 아시아 전체 순위에서는 77위이다. 국내 대학이 200여 개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14위는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아시아 전체 수백 개의 대학을 염두에 둔다면 이 또한 중위 이상의 순위로서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 순위 14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동국대에 대하여 요즘 인식을 달리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국대와 역사가 유사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수준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동국대는 아직도 밤잠 자지 않고 분발해할 여지가 많다.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사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먼저 섭심(攝心) · 도세(度世) · 자애(慈愛) · 신실(信實)의 건학이념 구현을 강조하고 재정의 확충,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재단 유휴자산의 활용 등 다방면에 걸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 학원 내 각급 학교의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건학이념 구현, 재정확충,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장 보광 스님의 대학운영 지침은 첫째 풍요로운 대학, 둘째 참사랑 열린 교육, 셋째 대학다운 대학으로의 복귀, 넷째 일산 동국대 병원의 최고 대학병원화, 다섯째 신바람 나는 대학 만들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는 그간 외부에서 영입한 CEO형 총장들이 외부평가지표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동대가 학문 중심이기 보다는 기업형 대학으로 치우친 자세에서 탈피, 대학의 본래면목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포부다.

여기서 다 부연할 수는 없지만 한 총장의 이러한 비전이 모두 성취된다면 분명 동국대는 크게 변모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대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형성된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는 가망이 없다.

첫째 고질병의 하나는 인치(人治)다. 약삭빠르고 아첨 잘하는 몇몇 사람이 이사장이나 총장의 총신(寵臣)이 되어 대학 행정이나 인사를 전횡, 학내의 화합을 파괴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을 퇴영(退?)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적폐들은 이제 과감히 척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다. 동국대가 2005년부터 근년까지 겪은 신정아 사건은 권한 행사만 있고 책임은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동안 동국대의 명예와 위상을 국내외로 한없이 추락 시키고, 미국 예일대와의 소송비용으로 무려 64억원의 교비를 탕진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나 법인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일대와의 소송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동국대는 마치 임자 없는 대학과 같다.

학교 책임자들이 제멋대로 권한행사만 해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는 일이 없는 무주공산, 이제 동국대는 이런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때문에 신임 이사장과 총장에 거는 교계와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社說

6.25 전쟁 65년, 잊혀진 폐사지 복원

오늘은 북한이 외세를 등에 업고 남침한 6. 25 발발 65주년 되는 날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지만 200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처참했던 동족상잔으로 국군 13만8천여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실종됐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군인이 13만여 명이다. 불교계의 피해 또한 크다.

조계종 문화부가 2014년 펴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편에서 한국전쟁으로 폐사된 사지 목록을 살펴보니 전국에 다수가 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로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서 추린 리스트로 이들 지역에만 22곳의 폐사지가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나마 남아있는 출토유물의 훼손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상태여서 이들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실전에 대비해 6월 16일 특수전사령부서 군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군종 야외기동훈련(이하 FTX)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보통 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심신안정과 인격지도 교관으로 활동한다. 최전선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병사들이 사망시에는 천도의식까지 치러준다. 심신 안정은 전쟁시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다. 그래서 미군은 걸프전 이후 군종장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지난 65년전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6. 25전쟁의 진실을. 그래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70돌 맞는 교법사단에 거는 기대

일반적으로 불교 종립학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인 '교법사'가 있다. 이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를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들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교화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하 교법사단)이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6월 26~27일 창립기념법회를 열려고 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9~10월로 행사가 연기됐다. 하지만 청소년 포교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법사단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이후 각 불교 종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두고 학생들에게 교학수업을 실시한 때로 본다. 1962년 8월 10일 불교교육연합회 전신인 불교종립학원연합회가 발족되고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 제1기 교법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화됐다. 처음에는 교사도 학생들도 무관심했지만 교법사들의 열정으로 불교 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됐다.

교법사단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포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과연구회에 '서울초중등행복인성교육연구회'를 지난 4월 등록했으며, 불교 사상을 핵심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드러나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 일반 학교 교사 및 교법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지원으로 청소년 포교자료집 〈행복일기〉를 7월 1일 공식 발간한다. 이 역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일기라고 한다.

7월 21일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인성 교육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래의 인재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법사는 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론과 교재를 개발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불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법사단의 향후 역할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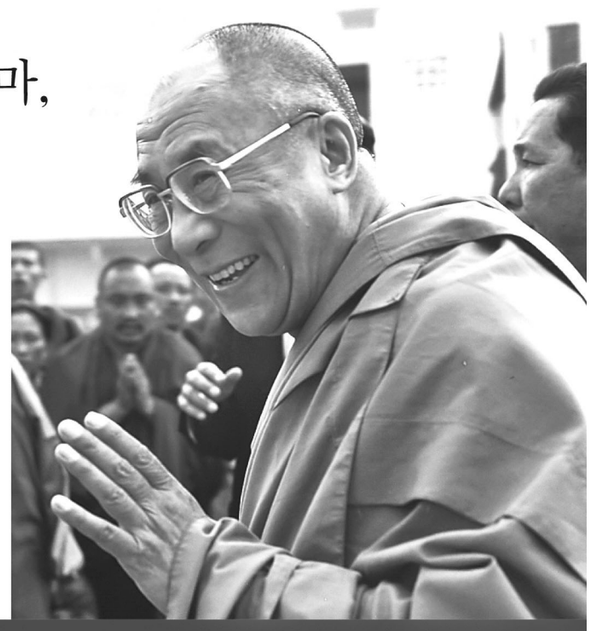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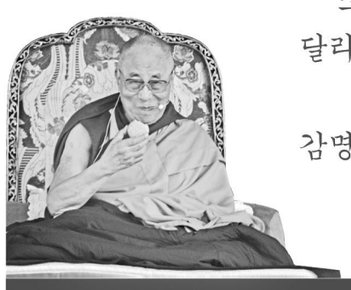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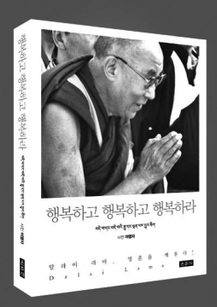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